

### 1. 의장단의 소통의 전무함 및 독단적인 일처리에 대한 입장

현재 저희가 각 상임위원장들을 비롯해 일반 의원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의장단은 위원장과 의장단에 대한 피드백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석서기의 상임위원회 별 서기록 피드백안 또한 저희와 위원회 간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했으나, 그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어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장단에서는 대변인단과 함께 의장단 페이지 개설, 카드뉴스 제작 등 보다 원활하게 의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의장단의 독단적인 일처리 방식의 예로 드셨던 '각 상임위서기들의 회의록 검토'는 의장단과 사무국 간의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장들의 반발과 항의로 인해 충돌이 일어났음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석서기의 회의록 피드백은 철회하기로 했으며, 의장단의 공식 사과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상임위서기에 대해 수석서기가 사과문을 작성함으로써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박기병 수석대변인은 '추후 의장단의 활동이나, 피드백을 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석대변인에게 전달하면 반영하겠다.'는 입장과 더불어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의 의장단의 방향성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 2. 신민기 부의장의 언어폭력에 대한 입장

4월 중순 경 전직 8대 대변인분께서 9대 대청의에 피드백이라는 명목 하에 간섭을 하셨고, 간섭을 받은 의원 분께서 연락담당의 역할을 맡은 부의장에게 연락을 해 상황설명을 곁들여 의장단 내 논의를 요청하셨고, 의장단 내 논의 결과에 따라 그 분께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제재를 가하는 과정에서 부의장의 언행이 그 분께 불쾌함을 드렸고, 5월 초 그 분께서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및 언어폭력'을 이유로 부의장직 박탈을 요구하는 글을 사무국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앞의 상황에서 부의장의 행동은 형법 상에 명시되어있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8대 대변인 분께서도 부의장에게 불쾌한 언행과 권위적인 언행을 하셨으며, 오히려 8대 대변인분께서 하신 행동이 모두가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로 부의장에 대한 비방을 하셨기 때문에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의장 또한 많은 불쾌함을 느꼈으며, 권위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무언의 압박감 또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중심인물인 B의원님과 다른 의원님께서 실수로 위원단에 대한 비방 및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했던 내용을 위원회 회의방에 올리자, 그 사안을 급하게 수습하려 정치법제위원회 단독에 들어가 8대임을 내세우며 9대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훈계하여 많은 의원님들께 피해를 주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전 8대 대변인님과 부의장 양쪽의 잘못이 있습니다. 저희 의장단은 이번 사안은 부의장과 전 대변인간의 지속된 감정싸움이 초래한 결과이며, 의장단의 직무에 대한 불신임안의 사유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3. 의장단의 업무태만에 대한 입장

저희 의장단에서는 위원장님들께 각 상임위원회 별 총회 전까지 입법청원안을 제출하여 달라는 업무를 드린바있고 그에 대한 날짜까지 명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별 온/오프라인 회의록에 대해 피드백과 소통을 위해 수석서기가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모아 관리하

려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해결되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석서기의 서기록 관리안 문제 이후 저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안이 생기면 위원장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함께 결정을 하는 등의 반영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의장단 회의록이 오프라인 회의록 한개만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장단 회의에서 의결 하려던 내용이 후에 진행된 운영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내용 안에 의장단 회의록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4. 사무국에 대한 의존 에 대한 입장

의장단이 사무국의 모든 지시사항을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규정총칙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독단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며, 의장단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에서는 사무국의 모든 지시사항을 논의하기보다는 의장단이 판단하기에 적절하고, 선례에서도 이러한 예시가 있었으며 문제가 없었으면 그 사안은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수석서기 사건은 8대 때의 선례도 있었고, 서기가 간단한 첨삭 등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신민기 부의장이 한 발언인 "의장단은 사무국의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지시에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부의장이 대청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조직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통화녹취록 확인 결과, 신민기 부의장은 사무국에서 정당한 지시사항이 내려올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부당한 지시사항이 내려올 때에는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장단 내에서도 임기 처부터 사무국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따르지는 말자, 꼭 따를 필요는 없다 등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이 부분에서 의장단이 사무국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의장단은 독단적인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신민기 부의장의 발언은 홈페이지의 모호한 조직도에 의한 혼란이었으며 이부분은 사과 드립니다. 또한 사무국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수석서기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의장단이 되겠습니다

#### 5. 대변인단 선발 과정에서의 공과 사 구분 미흡 에 대한 입장

수석대변인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는 대변인단 선발에서 부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분담하여 전화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석대변인은 당시 김민주 의원을 제외한 모든 대변인 신청자와 전화면접을 마무리한 상황이었으며, 김민주 의원은 끝까지 카톡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수석대변인이 면접진행을 못하는 상황이 되자 대변인단 선발과 관련하여 분담을 한 부의장은 김민주 의원에게 언제 통화가 가능한지와, 전화면접을 진행해야함을 공지하였고, 전화면접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8대 이준성 의원과의 관계를 물어본 것은 김민주 의원의 지원서의 대변인단 지원 동기 칸에 '8대 대변인과의 친분이 있어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었으며, 그 부분에 대해 수석대변인이 면접시 물어봐달라는 요구에 따라 왜 단지 친분을 가진 의원을 통해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것입니다.

면접과정에 있어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관계의 부의장과 의원이 면접을 진행한 것은 불신임안 사유와는 다르며, 이 부분은 수석대변인과 부의장간의 업무 분담에 따른 진행이었습니다.